

지역 소식통

김제시, 첫 아이 출산 시 1000만원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아이 낳고 함께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김제시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게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첫만남 이용권을 포함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600만원, 셋째 1,8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2,100만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또는 그 배우자는 마더박스, 김제사랑상품권, 생애첫도장 쿠폰 등 총 4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받을 수 있다.

마더박스는 고막 체온계, 신생아 안전 손톱가위, 맘스 안심패드 등 신생아와 출산 후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신 30주 이후 받을 수 있다.

또한 김제시 거주 출산가정의 영아(0~12개월)는 육아용품 및 유축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익산 폭우 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옹포면과 상당로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의 피해소식을 접하고 긴급공지를 통해 모집된 김제시 통합지원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하우스 정리와 침수피해물건 건조 등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호우피해 복구비 530억 확보

중앙합동조사 결과 발표... 특별재난지역으로 112억 추가 확보 · 재난지원금 8월 말 지급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완주군의 호우 피해는 352억원으로 사유시설 1,760건에 117억원, 공공시설 113건에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112억원을 포함해 복구비는 530억원(국비 389억원, 도비 67억원, 군비 74억원)으로 잠정 확보됐다.

사유 시설의 피해는 총 1,760건으로 주택피해는 총 174건으로 전과 4건, 반과 5건 침수 165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시설은 94개소 침수, 농작물 피해 297.6ha, 농경지유실매몰 34.1ha,

농경지침수 114ha, 산림작물피해 94.9ha 등으로 확정됐다.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비 39억2,000만원은 재난예비비를 확보해 재난지원금으로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총 113건으로 소화전 55개소, 지방하천 14개소, 도로 16개소, 수리시설 4건, 펌프장 1건 등으로 복구비는 491억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예비비 및 추경 시 실시 설계비용을 확보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군은 장산천(335억원), 성

북천(198억원), 과목동천(215억원)을 개선복사업으로 요청했다.

현재 완주군의 응급 복구율은 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를 돕고자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에 나서주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주는 등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난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시설 피해복구도 꼼꼼히 챙겨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비 그치니 '폭염' ... 온열질환 등 주의

'폭염대응 T/F팀' 꾸려 폭염 상황 관리... 9월 30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활동 및 저감시설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반 10개 부서로 구성된 '김제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일수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취약계층 폭염정보 신속전달,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대국민 폭염대책 홍보활동 강화 등 18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중에 있다.

먼저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시설 등 280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무더위쉼터에는 쿨매트, 산풍기 등 폭염예방 물품을 배부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곳곳에 그늘막 운영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 등 5개 주요 노선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주요승강장 23개소 및 공원 2개소에 열염을 배치하여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김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도시(3.0) 기본계획 수립 박차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추진과제 심의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미래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갔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2028년 아동친화도시(3.0)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심의했다.

추진과제 심의에 앞서 완주군은 아

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완주하는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비전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아동이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목표가 제시됐다. 이어 7대 추진 영역에 37개

추진 과제가 제안됐다.

놀이와 여가 영역에는 △복합놀이시설 조성 △아웃리치 팝업스토어 놀이장터, 참여와 존중 영역에는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아동권리교육 포상제 실시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안전과 보호영역에는 △아동친화상점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이, 보건과 복지영역에는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아동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영역에는 △진로 100인 100책 프로그램 △자립초점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정환경 영역에는 △만경강 가족캠프 △이주배경 가정 웹캠파티 등이 제안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은 지역의 미래로 행복한 아동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추진위원의 교감을 부탁드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연구회, 실천 캠페인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완주지회 원아들과 재활용 운동 앞장

완주군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심부건)가 25일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 앞에서 '빛나는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순환자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정책연구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완주지회와 함께 진행한 두 번째 실천활동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의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재활용이 귀찮은 일이 아닌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재활용 활동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퍼빈으로 시작하는 순환자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퍼빈은 4차산업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네프론)은 순환 가능한 자원을 판단해 선별한 후 처리 공정으로 운송되어 새로운 가치로 창출시키고 있으며, 개인은 쓰레기인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을 거래해 금전적 보상(페트병 1개에 10원/일일 최대 1000원)을 얻게 된다.

대표의원인 심부건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 운동을 통해 완주군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선도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의원도 "학술적 의미인 탄소중립과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단체는 이와 같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찾아 군민들에게 소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사랑상품권 앱' 기능 업그레이드 추진

'고향사랑페이' 개선·기능 추가... 10월 중 시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 앱인 고향사랑페이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사랑상품권은 2023년 김제사랑체크카드 발행으로 카드발행액이 약 24%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 수상뿐만 아니라 김제시민이 뽑은 김제시 10대 주요 성과에도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김제사랑상품권의 전용 앱인 고향사랑페이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김제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점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기존 앱 메인화면을 재구성해 잔액이동 메뉴를 신설하고, 소득공제 등 각종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 영수증 발급 가능, 체크카드 On/Off 설정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앱 최초로 고연령층을 위해 주요 메뉴를 확대할 수 있는 간편모드 기능과 다문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외국어지원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며, 이 기능들은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김제사랑상품권 앱 업그레이드는 다양한 기능 추가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페이 앱(1644-9760) 또는 김제시청 경제진흥과(540-3993)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